

자동차 10대 중 1대 친환경...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82만 2081대...지난해 대비 30%가량 증가
수입 친환경차 비중 85%...현대차·기아 등 EV 시리즈 잇따라 출시

국내 전기차와 수입차의 친환경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80만대를 넘어섰고, 수입차 시장도 내연기관 차에서 친환경으로 재편되는 등 소비자가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총 82만 208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63만 5847대)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전기차 100만 시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7만 5009대였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난

해 같은 시점(183만 6631대)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643만 4692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2.1%까지 올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연말 기준 2015년 0.9%, 2020년 3.3%에서 현재는 10대 중 1대의 비중까지 올라섰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 승용차 중 휘발유 차량은 국토부 등록 기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년 97.8%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하이브리드(57.5%)와 전기차(27.8%)가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85.3%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승용차 친환경차는 8월 기준 22개 브랜드

320여개 모델에 달한다. 반면 내연기관차 하락세는 심화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휘발유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1240만 1663대로 작년 같은 달 대비 0.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유차는 876만 8995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84만 5186대로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0.29% 감소했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친환경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도 EV(전기)시리즈를 잇따라 내놓는 등 친환경차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업체부터 외제차 업체 모두가 친환경차를 선보이고 있다”며 “세계 여러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그룹-NTU-A*STAR 기업 연구소 연구원들이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싱가포르에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제조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대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가 대학, 정부 기관과 함께 싱가포르 모빌리티 제조 분야 최초 산·학·연 연구소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HMGICS는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난양공대(NTU),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과 현대차그룹-NTU-A*STAR 기업 연구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3자 기업 연구소 설립 조인식을 맺은 지 1년 만의 성과다. NTU는 세계 1500곳 이상의 대학을 평가하는 영국 ‘QS 세계 대학 순위 2026 세계 최고 대학’ 올해 평가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다. A*STAR는 싱가포르 대표 공공 부문 연구개발(R&D) 기관으로, 과학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자 기업연구소는 HMGICS 내부에 조성돼 학문적 연구와 실제 산업 적용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HMGICS가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해 제조기술 과제를 발굴·제공하면 NTU와 A*STAR가 연구·개발과 실증에 참여해 학문적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스마트 제조, 디지털 전환 등 차세대 기술이다. 세부적으로 스마트 제조를 위한 AI 기술, 생산 효율·품질·작업자 업무 환경 향상을 위한 로봇 기술, 자동차 부품용 3D 프린팅 기술, 결합 감지·검사 정확도 향상, 설비 가동 중단 최소화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현을 견인하고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제조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준철 현대차·기아 제조부문장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변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자율운영공장 구현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추진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3자 기업연구소 설립은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기아, 복지관·사회적 경제조직에 PV5 기부한다

26일까지 신청 접수
차량 대여·운영비 지원

기아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전국 복지기관·사회적 경제조직에 차량을 기부하는 ‘기아 무브&커넥트’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아는 복지기관 9곳에 기아 최초의 전동화 전용 목적기반모빌리티(PBV)인 PV5를 기부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8곳에 24개월간의 차량 대여와 매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PV5 패신저, 카고, 휠체어용 차량 등 목적에 따라 차종을 제공해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그린라이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기아 관계자는 “복지관과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사회의 최전선에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지속 가



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게 이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호고속, 광주~안양·안성 신규 노선 운행

안양 하루 3회·안성 2회

금호고속은 “15일부터 우스퀘어에서 경기도 안양시, 20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운행 노선을 신규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안양 노선은 하루 3회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주중 광주 출발 오전 7시 2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7시, 주말에는 오전 6시 50분, 오후

1시 10분, 오후 6시 30분이다. 안양 출발은 주중 오전 8시 10분, 오후 1시 40분, 오후 7시 40분, 주말 오전 7시 40분, 낮 12시 50분, 오후 7시 40분이다. 소요 시간은 4시간 5분이며 수원을 경유한다. 안성 노선은 하루 2회 운행한다. 광주 출발 오전 9시, 오후 3시이고 안성 출발 오전 9시 10분, 오후 3시다. 소요 시간은 4시간 5분이며 안성중앙대를

경유한다. 운행 요금은 광주-안양 4만 1900원, 광주-안성 3만원이며 예매는 ‘고속버스 티머니’와 ‘티머니 Go’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노선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을 확대해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있는 광역 교통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기 SUV ‘세닉’ 구매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르노코리아 10월 최대 420만원

르노코리아는 “10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E-Tech’를 사면 최소 250만원의 전기차 특별 구매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유한 고객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 할인제 추가 혜택 지역이나 지역 보조금 소진 지역에는 50만원, 전시장 프로모션 20만원, 침수차 피해 지원 50만원 등도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모든 혜택을 더하면 세닉 구매자는 최대 42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전시장에서 세닉, 그랑 플레오스, 아르카나 등의 시승·상담·계약 고객에게 주유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